

대만 섬유 산업

- ECFA 살려 중국으로 기능성 소재 중심 수출 확대

대만 섬유 업계는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發效)되는 해협 양안 경제 협력 구조 협정(海峽 兩岸 經濟 協力 構造 協定 : ECFA)를 활용하여, 각종 기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차별화를 중심으로 중국으로 섬유 원료 및 텍스타일의 수출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대만의 2010년 1 ~ 8월 섬유 제품 수출액은 2009년 동기(同期)와 비교하면 23%가 늘어난 73억 8,200만 달러로, 2009년 동기에 21%가 줄어들었던 것이 세계 금융 위기 전인 2008년 1 ~ 8월의 75억 6,900만 달러 정도까지 회복하였다.

대만의 2010년 1 ~ 6월 섬유 제품 수출 상황을 보면 대만의 봉제 공장들의 대부분이 본부를 대만에 남겨두면서 생산 시설은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옮겨버려, 대만의 의류는 전혀 보이지 않으며 60%를 차지하는 생지나 실, 파이버(fiber)가 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수출 시장별로는 중국이 22%를 차지하고 홍콩을 포함하면 35%가 된다. 봉제 공장으로 공급해 주는 소재가 많아지고 있으며, 홍콩과 역전한 베트남이 2위로 올라 있다는 것도 특별히 지적할 만하다.

첫째가는 시장인 중국과 대만 사이에 2010년 6월 29일에 체결된 ECFA가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ECFA의 실패는 FTA(Free Trade Agreement : 自由 貿易 協定)와 같은데 쌍방의 정치적 관계를 반영하여 ECFA로 표시하였다. 이 협정에서는 섬유 제품의 관세 조기 인하 항목(關稅 早期 引下 項目)으로써 중국 측이 136 항목, 대만 측이 22 항목을 정하고 있다. 앞으로 협의를 통하여 차례로 인하함으로써 2013년 말에는 모든 것이 0%로 관세가 없어진다. 더욱이 항목의 추가도 예정되고 있다.

대만 측의 추계(推計)에 따르면 그 외의 전제 조건이 변하지 않으면, ECFA 발효의 효과로서 대만에서 중국으로의 섬유 제품 수출은 약 5억 1,000만 달러, 중국에서 대만으로

의 수출은 1억 6,000만 달러가 늘어난다.

그 대신 대만의 봉제, 타월, 양말 등 업계는 ECFA로 중국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하여 대만 정부는 전업(轉業)이나 폐업(廢業)에 보조나 관측 지원 등으로 원조하면서도 도태를 촉진할 것이다. 일본계 상사에 의하면 최근 10년 동안 도태되어 왔으며 이미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은 상태라고 한다.

메이커가 많이 있던 폴리에스터 섬유 업계에서는 ‘난야 플라스틱(南亞 plastic), 원동 신세기(遠東 新世紀 : Far Eastern New Century, 遠東 紡織의 改稱), 타이난 방직(台南 紡織), 역려(力麗, Lealea) 기업’의 4회사로 집약되어 범용 제품을 버리고 기능 소재나 니치(niche) 제품으로 시프트(shift)하였다. 신광 합섬(Shinkong Synthetic Fiber Cooperation, 新光合纖)은 필름이나 공업용 플라스틱으로 사업의 중점을 옮기고 있다.

개별 기업으로부터 “대만의 우위성은 개별 능력에 있으며, ECFA는 전체적으로 유리하게 된다.”고 하거나 또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은 대량 생산의 레굴러 제품들이다. 이를 피하여 기능성을 소비자에게 직접 제안해 나간다.”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일본이 철퇴(撤退) 축소(縮小)하는 분야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대만은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만 섬유 산업 단체의 연합회인 대만 방척회(臺灣 紡拓會)는 2010년 11월에 저장성 항저우시(浙江省 杭州市)의 ‘중국 경방성(中國 輕紡城), 항저우 서방 연합시장(杭州 瑞紡 聯合 市場 : RUM)’에 중국에서는 최초로 사무소를 열었다. 중국 여성 패션의 중심지에 시장 진흥, 디자인, 정보 지원의 거점을 만들어 대만 기업의 중국과의 경쟁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인 서비스 활동은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에 개시될 예정이며 2011년 상반기에는 독자적인 전시회도 개최하려 하고 있다.♣